

박물관에서 가족교육을 통한 가족융합의 의미와 질적 가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eaning and Quality Value of Family Integration through Family Education in Museum

엄혜윤
한국고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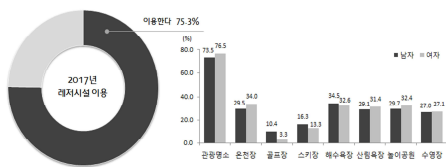
Eom hyel-yo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최근 여가 문화 비중이 날로 증가하면서 레저 관광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동시에 질 높은 문화 향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초·중고 자녀들의 건문 넓히기를 위해 주말이면 나들이를 떠나는 인구 비중 역시 문화 향유 기대치와 비례하여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주말 가족 단위의 여행을 통한 체험은 휴식과 놀이는 물론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한 활동이기를 기대한다. 최근 교육 프로그램은 과거 아이들만 현장에 맡기는 타아형에서 벗어나 부모가 교육 활동에 개입하는 공유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며, 가족간 결속과 가족 탄력성이 은연중에 스며들도록 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실현이 매우 중요해졌다. 본 고에서는 박물관에서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온가족 참여 교육 결과를 가족 대상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분석해보고 보다 적극적인 가족 형태의 교육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한다.

I. 서론

2017년 통계청에 의한 사회조사 결과로 볼 때, 여가생활에 관하여 지난 1년 동안 국민 10명 중 8명(75.3%)은 유적지, 국립공원 등의 레저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에서 각 레저시설 이용자 비율을 보면 관광명소가 가장 높고, 그 다음 해수욕장과 온천장 순이다. 따라서 관광명소는 누구나 친근하게 방문하고 접근하는 장소이며 레저문화가 우리 삶에서 매우 큰 범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¹⁾.



▶▶ 그림 1. 레저시설 이용 현황

또한 가족과 함께 여가 활용을 하는 사람이 주중 43.4%, 주말 5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중에는 혼자서(30.3%)하는 사람이 많고 주말에는 친구(연인포함)(21.1%)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¹⁾.

사람들은 박물관에 혼자, 친구, 가족 또는 그룹을 지어 방문한다.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은 경험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방문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특정 작품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많이 또는 적게 감상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함께 나누려고 같이 온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서 감상한 후 다시 만나서 각자 감상한 것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어떤 방문객들은 미술관에 가족을 데리고 와서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²⁾.

II. 가족 체험형과 가족 융합형 교육 정의

가족 체험형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³⁾. 대개는 같은 소재를 중심으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교육과정을 실현해 가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족 각각의 개인별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족이 같은 공간과 시간을 활용하여 함께한다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개별 체험이 핵심이다. 교육 내용 수준면에 있어서는 어린이가 중심이 되어 설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 융합형 교육은 의미 있는 경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경험의 공유와 소통, 공감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³⁾. 여기에서는 똑같은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교육에서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이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가족 간 덕담 나누기, 감사의 말 전하기 등,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그림 2. 가족 교육 형태

표 1. 관련 용어 정리

	교육의 요소	관계
융합 교육	교육내용	과목 간 융합
가족 융합	학습자	가족 간 융합

융합이라는 용어는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융합교육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분야 등의 여러 교과, 다양한 학습 내용의 범위들을 녹여 주제중심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융합이라는 의미는 <표 1>의 교육 참여 대상의 관계, 상호작용을 통한 융합으로 세대 간의 격차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 체험형 교육과 가족 융합형 교육을 구분하여 비교해 볼 때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상황과 여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지만, 본 고에서는 가족 융합형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해 보고자 한다.

Ⅲ. 가족 융합 교육의 의미와 가치

가족이란 혈연을 중심으로 맺어져 통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친근한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마주보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전제한다.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대화일 것이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타자는 각자의 지평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를 전통에 제한시키지 않고 자신의 지평을 확대시켜 타자의 지평과 융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해는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4]. 개인의 경험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르게 설명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수궁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간다. 이를 가다머(Gadmer)는 지평이 계속 융합되어 간다고 표현하였다. 해석학적 경험의 요체인 지평융합이 보여주는 것은 이해의 과정이 본질적으로 대화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언어라는 매개 없이는 지평융합을 생각하기 어려우며 언어를 통해서만 타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

하면 모든 이해는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창출되며, 따라서 그 본질은 언어적이다.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존재의 탈은폐성이 드러나며, 서로 다른 지평들이 융합된다. 결국 지평융합이라는 것도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대다[5].

Ⅳ. 나가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교육의 실천을 통한 가족 융합형 교육의 기대효과는 첫째,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생활에 있는 현 시점에서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가족 친밀감 생성과 확장이다. 둘째, 학교 교육 및 사교육과의 차별화를 극대화하고 박물관 고유의 특성에 맞는 교육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셋째, 누구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넷째,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개인과 박물관 간의 친밀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 ‘가족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더욱 건강한 가족 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 가능한 박물관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1]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결과”, 2017.
- [2] C. Henry, “The museum experience”,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2010.
- [3] 엄혜윤, “교육박물관에서의 의미형성을 위한 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11호, pp.154-173, 2016.
- [4] 이정우, 개념 뿌리들2, 철학아카데미, 2004.
- [5] 박남희 외, 행복한 인문학, 이매진, 2008. .